

올해도 ‘떼주총’

3월 24일 정기주총 기업 238개사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 11.8% 달해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올해도 특정일에 몰리는 ‘떼주총’ 문제가 반복될 전망이다.

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7일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기업은 총 238개사(유가증권시장 24개사·코스닥시장 214개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체 12월 결산 법인 2010개사의 11.84%에 달한다. 이어 3월 25일(87개사), 23일(79개사) 순이었다.

24일 주총을 여는 주요 기업으로는 쌍용자동차, 현대상선, LS산전 등이 있다. SK, 한화, 카카오 등은 25일 주총을 열 예정이다.

23일에는 현대미포조선, 한화생명, 한솔제지 등의 주총이 예고돼 있다.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통상 주총이 많이 몰리는 시기를 ‘주총 집중 예상일’로 정해 가급적 이날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가 정한 집중 예상일은 3월 13·20·26·27일이다. 코스닥협회는 3월 20·25·26·27·30일을 집중 예상일로 정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주총 예정일

은 25일(78개사)에 몰리는 양상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4일(214개사)에 주총일이 몰리고 있다.

물론 주총 집중 예정일을 피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두 단체가 집중 예정일로 지정한 26일, 27일 주총을 열겠다는 기업은 각각 20개사, 56개사였다.

주주총회분산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열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까지 두 단체에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총 591개사(코스피 196개사·코스닥 395개사)다.

양 협회는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아 개최일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런데도 주총일이 3월 하순에 몰리는 데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월 중순께 주총을 열었던 넥센타이어는 올해 회계 감사 업무가 늦어지면서 아직 주총 일정을 잡지 못했다. 사실상 2월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작년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

은마, 2억 낮춰도 “안 팔려요”

강남3구 매매가 하락폭 갈수록 증가
은마아파트, 3개월간 거래 전무
수원팔달·용인수지 상승폭 여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2억원이 떨어진 매물이 나왔지만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된 아파트가 없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 내 재건축 단지와 그간 급등한 단지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7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풍선효과 지적이 이어지는 수도권 수원팔달과 용인 수지의 상승폭은 여전하다.

2월 첫 주(2월 3일 기준)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8%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2·16대책 이후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둔화(0.02%→0.01%)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투자 수요 유입이 많았던 재건축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송파구는 0.06% 하락했고, 강남구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2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연우 기자

와 서초구도 각각 0.04%, 0.03% 떨어졌다. 잠실 주공5단지과 대치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떨어졌고,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강남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은마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6283만원, 전세가는 1524만원이다. 강남구 아파트의 지난해 12월 매매 거래량은 344건, 1월 거래량은 56건, 이번 달은 1건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은마아파트에서는 거래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은마아파트 전용 84㎡ 매매가는 12·16대책 이전 24억원이었지만 지금은 22억원으로 약 2개월 만에 2억원이 떨어졌다”라며 “매물은 있지만 거

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포자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6079만원, 전세는 3263만원이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평균매매가는 3.3㎡당 8434만원, 전세 4425만원이다.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0건이 거래됐다. 1월 거래량은 58건, 이번 달은 2건이다. 반포자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전용 132㎡가 3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아크로리버파크는 12월 164㎡가 43억8000만원, 84㎡가 2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418건, 1월 72건, 이번 달 4건이 거래됐다. 잠실 엘스 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119.93㎡ 매매가격이 26억1000만원을 기록했지만 1월 25억5000만원으로 거래되며 6000만원이 떨어졌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코로나 우려에도 반등... 주식형펀드 4.16% ↑

주간펀드동향

중 펀드 수익률 선방에도 900억 이탈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를 떨치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식형 펀드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중국 펀드는 수익률에서 선방했지만 900억원 규모의 자금이탈이 발생했다.

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1월 31일~2월 6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4.16%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급락한 증시에 외국인인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증시가 반등한 영향이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자금은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2714억원 줄었다. 특히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에서 465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주식 변동성 확대에 따른 차익 실

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77%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는 일본(3.42%), 중국(0.69%) 펀드만이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총 711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할 것이라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펀드에서만 941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과생재간접형)종류A’ (9.84%)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중국주식형인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 2.0증권투자신탁(주식·과생재간접형)종류A-E’가 8.42%로 수위에 올랐다. /손업지 기자

키움증권, 11일 美 주식 투자 세미나 개최

코로나 예방 차원 온라인서만 제공

키움증권이 미국주식 투자 세미나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온라인에서만 제공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주식 고성장주 공략방법과 월가에서 추천하는 성장주를 주제로 이항영 열린사이버대 교수와

장우석 US STOCK 본부장이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 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세미나 외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0.1%, 환율우대 95%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으로 40달러로 미국 주식을 경험해보는 미국주식 첫거래 이벤트와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 미국주식 서버 자동 감시 주문 이벤트를 함께 진행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대신증권의 가치경영... 21년 연속, 배당만 1조

외환위기 이후 현금배당 1조 넘어 투자은행 키우고 자산관리 집중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

대신증권은 21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실시한 현금배당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증권업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외형보다 내실을 강조하는 대신증권의 가치경영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대신증권은 업계 주요 먹거리인 투자은행(IB)을 키우면서도 자산관리(WM)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경영전략을 세웠다. 전문화·디지털화를 통해 고객 자산관리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사회책임경영 등 지배구조평가에서 한국지배구조원으로부터 B+등급을 받았다. 업계 4위 성적이다. 사회책임투자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는 BB등급, 업계 3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의 자기자본이 업계 10위 수준이란 점에서 내실있는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과 활동, 최고경영자, 위험관리, 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금융투자업계 평균을 웃도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독립된 사외이사의 감독 하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망 대체투자 상품을 소싱하며 금융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미국 뉴욕에 현지법인 설립하며 9월 뉴욕 맨해튼에 상품 소싱을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 2019년 5월 대신자산운용은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공모형 펀드를 완판시킨 바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기대수익률은 낮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며 “IB 역시 조직 확대, 인력 충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손’과 ‘작은손’을 위한 서비스는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큰손을 위해서는 ‘금융주치의’ 양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08명의 금융주치가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IT) 금융플랫폼을 만들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송종원 경영기획실장은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며 오랜기간 주주 중심의 경영을 지속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배당을 비롯해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있다. 21년 연속 현금배당을 해왔고, 배당성향 역시 다른 증권사를 능가한다. 벌어들이는 몫의 상당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5.1%, 우선주 7.3% 수준이다. 은행예금금리를 크게 웃돈다.

지속적인 자산주 매입으로 주가 안정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2차례 자산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대신증권의 주가는 5.02% 상승했다. 해당기간 코스피 증권업종지수는 3.82% 상승했다. 매입한 자산주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활용, 임직원의 경영성과 향상과 장기 근로의식 고취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대신증권은 수익모델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B에서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WM 부문을 소홀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작년 7월부터 대신자산신탁 출범을 통해 신탁업을 시작한 만큼 ‘WM사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